

국어

[1~3]은 화법에 관한 문제이다. 방송에 사연을 보내면 방송 진행자이자 심리 상담가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고민을 해결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1. 정답 : ①

해설 :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은 위의 글을 보면 사연을 읽은 후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처럼 안타깝네요.’라는 부분에서 보면 신청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 사연을 읽은 후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어 정답은 ①이다.

2. 정답 : ③

해설 :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으로 반영된 것은 ㉠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제시하고, ㉡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인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 장점 말해 주기와 ㉣의 감정 헤아려 주기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 정답 : ③

해설 :

청취자들의 반응 분석은 총 5가지였으며,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을 딸아이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댓글을 올렸는데, 설명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한다고 하여 오답임. 따라서, ③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4~7]은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를 내기 위해서 회의 내용이 접목되어 있다. 화법과 작문 영역이 복합적으로 나온 지문이다.

4. 정답 : ④

해설 :

(가)의 기사문 초고에서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한다고 했는데, (나)지문 학생 2의 발언을 보면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라는 말이 나온다. 응원 메시지는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가슴에 달고 뛰었기 때문에 고쳐쓰기가 잘못된 내용이다. 따라서, ④은 고쳐쓰기가 잘못된 내용이다.

5. 정답 : ④

해설 :

(나)의 학생 1의 발언을 보면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가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는 ‘화합’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연이어 학생 1이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라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가)의 마지막 부분은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언급하고 학생과 선생님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6. 정답 : ⑤

해설 :

대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이다. ㉠은 기사문이 실린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학생 2가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1이 분량을 생각한다는 것과 상반되지 않고 공감하는 내용이라, 설명이 잘못되어 틀린 내용이다.

7. 정답 : ③

해설 :

학생 3이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각각 받아들여 고쳐쓰기 활동을 하려한다. [A]는 학생 1의 의견이 더 반영되었으며, [B]는 학생 2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가장 적절한 답은 ③이다.

8. 정답 : ②

해설 :

㉠은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다) 학생의 글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로봇세의 의미와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 나온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다. ② 은 로봇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이 잘못된 내용이다.

9. 정답 : ②

해설 :

㉠ 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의 사례를 찾는데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료 활용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10. 정답 : ②

해설 :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적절한 글을 찾는 것이다. [A]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으며, <보기>는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로봇의 사용으로 인간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한 글은 적절하다.

11. 정답 : ③

해설 :

최소 대립쌍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A]에서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쉬리 ; 소리(쉬:리), 마루 : 머루(마:루), 구실 ; 구슬(구:슬)이다. 그런데 최소 대립쌍으로 쓰인 평순모음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4개(ㅏ, ㅑ, ㅣ, ㅡ)이다.

12. 정답 : ②

해설 :

㉠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밭 가락’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는데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여 현대국어에서 ‘발가락(밭의 가락)’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술방울(술의 방울)’은 ‘술방울’에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나무’는 ‘ㄹ’탈락 현상으로 중세 국어 ‘술’과 ‘나무’의 합성어로 ‘ㄴ ㅊ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푸나무(풀+나무)가 해당된다. ㉢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이틀+날’의 합성어로 ‘이튿날’은 근대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하여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튿날’이 ‘이튿날’로 표기된 것은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설달(설+달)’이 여기에 해당한다.

13. 정답 : ⑤

해설 :

다섯째 단락을 보면 ‘근대국어에서 ‘ㄹ’이 탈락하고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국어 ‘술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술’과

'뿔'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 ㉓

해설 :

㉓는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와 '별이 반짝인다.'가 결합된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안긴문장(별이 반짝이다)의 주어는 '별'이다. ㉓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주어(별이 반짝이다)로 쓰였으므로 안긴문장의 목적어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 ㉑

해설 :

㉑과 ㉒의 '발개'는 표제어 '발다'가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발다'가 활용한 ㉑과 ㉒ 중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의미를 지닌 ㉑이 적절하다. 한편 ㉑에는 부사 '바투'가 표제어이다. 따라서 ㉒에는 ㉑과 ㉒ 중 의미상으로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로 쓰인 ㉑이 적절하다.

16. 정답 : ㉓

해설 :

첫 단락에서 계약에서 '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둘째 단락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하였다. 여섯 째 단락에서 '의사표시가 작용하지 않고 이행 불능으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㉓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17. 정답 : ㉑

해설 :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을'의 채무는 그림 A를 '갑'에게 인도할 의무이다. 그런데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고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갑'의 채권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8. 정답 : ㉑

해설 :

㉑의 상황(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이 발생한 이유는 '을'의 과실로 그림 A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을'이 채무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

19. 정답 : ㉓

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변제의 의무 발생 여부에 있어서, 매매가 변제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반면에, 증여는 변제의 의무가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에, 3번이 정답이다.

20. 정답 : ㉑

해설 :

'판결이 나올 수 있다'에서 '나오다'는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의 의미이므로 1번의 '실험 결과가 나오다'의 '나오다'가 '연구'의 결과물로서 '실험결과'가 도출된 것이므로 가장 적합하다.

21. 정답 : ㉑

해설 :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의 딸의 출가로 인해, 슬퍼하는 일련의 행동과, (나)에서 아내를 궁핍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고생을 시키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철호의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각각 딸의 상실과 아내의 고생이라는 현실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2. 정답 : ①

해설 :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발소 소년’은 ‘신전집 사람들’의 집을 나가는 행위를 포착하는 등의 천변지역의 일상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정답 : ④

해설 :

‘독자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롱이 어머니의 말을 매개로 독자들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 정답 : ②

해설 :

(가)에서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갈등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있고, (나)에서 명숙이 대화를 엿듣는 모습도 갈등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적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25. 정답 : ⑤

해설 :

장면 70의 철호의 침묵은 절망적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장면 71의 영호와의 대화는 소심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주관적 철학에 대한 소신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6. 정답 : ⑤

해설 :

㉔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신전집이라는 대상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만, 장면 75는 특징적인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문밖과 문안이라는 서로 다른 두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27. 정답 : ②

해설 :

첫 번째 단락에서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라는 구절과 다섯 번째 단락의 ‘그 위상이 구체화 되었다는 구절’, 여덟 번째 단락의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구절을 통해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제시되어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8. 정답 : ⑤

해설 :

내용 확인 문제 - ⑤ 서양과 동양 모두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 되었음.

29. 정답 : ④

해설 :

핵심 개념 확인문제 - ④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하는 모형을 제시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답 정리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서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보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단순성이 충족된 이론이다. ③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는 이론으로 여겨졌다. ⑤ 케플러의 우주론은 형이상학적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신플라톤주의는 경험주의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이었다.

30. 정답 : ⑤

해설 :

개념 추론 문제 ⑤ ㉠의 내용에 따르면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1. 정답 : ②

해설 :

<보기> 적용 문제 ②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뉴턴의 이론이다. 둘의 만유인력은 같지만, 둘의 질량은 다르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정답 : ②

해설 :

어휘 문제 ② 고안하다 : 깊이 연구하여 생각해 내다.의 뜻이므로,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모형을 만들었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이다.

33. 정답 : ①

해설 :

공통점 찾기 문제 ① (가)에서는 '제삿날 밤 열나홀 새벽 달빛', (나)에서는 '삼월에 눈이 온다' 등과 같은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4. 정답 : ④

해설 :

표현상의 특징 문제 ④ 구체적 상황 묘사가 없고,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는 구절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정답 : ③

해설 :

<보기>를 통한 감상 문제 ③ '날개'는 눈, '지붕과 굴뚝'은 눈이 덮인 모습으로 흰색은 밝은 색이긴 하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을 표현한 부분에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정답 : ⑤

해설 :

고전소설의 서술상 특징 ⑤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업이 자점의 지략에 당해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오므로 지략 대결은 적절하지 않다.

37. 정답 : ⑤

해설 :

<중략> 이후 내용을 보면 꿈에 경업의 대화를 통해 자점의 반역 의사를 알게되고 이후 국문을 과정에서 자점이 자복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8. 정답 : ④

해설 :

[B]는 자점의 심복 부하에게 경업이 죽임을 당하는 부분으로 ㉠의 평민층 반응은 자점의 행위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임경업에 대한 연민이다.

39. 정답 : ①

해설 :

4문단에서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40. 정답 : ②

해설 :

1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P와 ~P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선택지 ②에서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①(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다.

41. 정답 : ③

해설 :

3문단을 보면 기차를 탄 가능세계에서 지각을 하지 않을 가능세계가 지각을 하는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2. 정답 : ④

해설 :

4문단의 가능세계의 성질에서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을 수 있다.

43. 정답 : ①

해설 :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 속에서 희롱하니’는 거친 풍량의 비유적 표현으로 배가 마구 흔들리는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공간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44. 정답 : ③

해설 :

㉠은 풍량이 그친 후 바다의 장관을 보는 작가의 감탄을 표현하고 ㉡은 전승산이 ‘나’의 글쓰기를 보고 그 능력에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45. 정답 : ④

해설 :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나’의 글쓰기 능력에 감탄한 전승산이 ‘나’를 지칭하여 한 말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필담을 통해 드러난 ‘나’의 글재주에 감탄한 전승산이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